



구윤철 부총리, 미국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빈틈없는 관계부처 위기대응 체계 유지

- “지금은 중동전쟁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”임을 강조
- 공급망 안정화 및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
- 차량용 요소·요소수에 대해 선제적으로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
- ‘공급망 애로 핫라인’ 통해 현장기업의 애로를 규제특례, 적극행정으로 신속 해결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.17일(금) 08:00(현지시간 4.16(목) 19:00) 주요 20개국(G20)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(워싱턴 주미대사관-정부서울청사)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·논의하였다.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/물가(재정부), 에너지수급(산업부), 금융안정(금융위), 민생복지(복지부), 해외상황관리(외교부)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,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(해수부)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* 참석 : 부총리(주재), 외교부·산업부·복지부·해수부·국조실·금융위 등 장·차관

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(IMF)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*(4.14일)하는 등 물가압력·공급망 교란·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* 1월 전망대비 0.2%p 하향(3.3→3.1%), 단 한국 성장률은 1.9%으로 동일하게 유지

이어 구 부총리는 “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,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
아울러 「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」을 통해 현장기업의 애로를 규제 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*하고 있다고 하면서,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**하겠다고 밝혔다.

*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, 계약기금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,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,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·부가세 납부유예 등

** 조달청,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 공고, 4월 말(4.22~27일) 방출 예정

끝으로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, 우리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·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(별첨) 부총리 모두발언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임강빈 (ikb23@korea.kr)
	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27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수현 (minejk34@korea.kr)
	재정경제부 공급망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지은 (044-215-78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우 (paxkoreana@korea.kr)
재정경제부 다자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배경화 (044-215-4810)	
	담당자	사무관	송기선 (steamship@korea.kr)	

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오늘 회의에서는 5개 실무대응반 반장부처* 등 주요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합니다.
 - * 실무대응반: <재경부(거시경제물가대응반), 산업부(에너지 수급반), 금융위(금융안정반), 복지부(민생복지반), 외교부(해외상황관리반)> + 해수부, 국조실
-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.
 - 고유가 등 물가압력, 공급망 교란,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 - IMF도 “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” (Global Economy Tested Again)라고 평가하면서,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.2%p 하향*하였습니다.
 - * 1월 전망대비 0.2%p 하향(3.3→3.1%), 단 한국 성장률은 1.9%으로 동일하게 유지(4.14일)
- 지금은 “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”입니다.
 - 정부는 중동전쟁이 끝나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먼저 원유·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,
 - 우리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정보 제공, 24시간 기술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4.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- 시행조치들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면밀히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.

□ 차량용 요소·요소수의 경우,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*하겠습니다.

* 조달청, 차량용 요소 방출계획 공고, 4월 말(4.22~27일) 방출 예정

○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,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□ 아울러, 「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」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*은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.

* 4.6일부터 15일까지 78건의 제안 접수

○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,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,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습니다.

○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, 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유예를 추진 중입니다.

□ 끝으로, 추경예산도 조속히 집행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4.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.5조원은 상반기내 85% 이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.